



‘아시아의 세기-글로벌리제이션의 다음 단계-’

Adrian S. Cristobal Jr.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ERIA) 이사회 의장

‘우리는 아시아의 세기에 살고 있다’ 라고도 한다.

지난 3년간 중국의 존재감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공격적인 자세를 강화하고 유럽에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그 리더들에게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아시아는 성장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아시아의 성장이 세계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또는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시아 성장의 기회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주요한 마크로 경제지표를 보면 명확하다. 예를 들면 세계의 실질 GDP나 중산층 소비자 수에 있어 지역시장은 유럽과 북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한편 아시아의 비율이 탑 수준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도 신장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문맹인 등의 사회적인 지표도 아시아는 신장되고 있다.

물건과 서비스 무역도 현저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가 신장되는 가운데 지역 내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인적 흐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지식과 기술혁신면에서도 신장하고 있으며 지식을 통한 수입을 글로벌적으로 취득하고 있다.

수송과 물류에서도 아시아는 제품수송과 국제여행의 주요 허브화가 진척되고 있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문화에서도 출판과 오락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으며 지역 내 문화의 왕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에서는 물건, 자본, 사람, 지식, 지역수송이 성장하여 통합이 진척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과 네트워크는 글로벌화를 재정의하고 있다.

아시아는 보호주의와 고립주의에 편중되고 있는 세계에 대한 해독제로서 지역화라고 하는 답을 내고 있다. 아시아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이며 공업화, 기술혁신, 문화와 유동성에 있어 매우 큰 허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회합의 테마이기도 한 관광분야에서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앞으로 더욱 큰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관광지로서 인기가 있어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의 의료 투어리즘과 한국의 미용관광 등 관광분야에 있어 틈새시장도 출현하고 있다.

아시아의 통합은 공업화, 기술혁신, 문화와 유동성이라는 3가지 면에서 큰 네트워크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글로벌화의 후퇴가 나타나는데 아시아는 지역화라는 글로벌화의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정치가 등은 조직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쟁과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이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고려하는 것과 통상, 자본, 문화의 확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사람의 흐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도 지역간의 연계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연계강화는 또 다른 연계를 낳아 다양한 문제해결에 공헌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여 경제와 비즈니스를 초월한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이 되어 갈 것이다.

